

## 구미시, 과학으로 놀아봤니?

구미과학관, 과학놀이융합 행사 개최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등록 2019년11월11일



▲ 사진제공 구미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는 구미과학관이 시민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11월 10일 과학트림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미시 관계자는 과학트림은 기존의 스팀(STEAM) 교육에 레크리에이션을 결합해 스트림(STREAM)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활동을 처음으로 시도한 것으로 구미과학관에서는 놀이 요소를 스포츠로 정해 스포츠 활동과 언플러그드 코딩, 스포츠 속 과학원리 체험으로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행사는 오전 이번행사를 기다려온 어린이들이 에어바운스로 만들어진 미로를 통과해 참가할 스포츠 종목을 찾은 다음 참가종목에 관한 퀴즈도 풀고, 야구, 농구,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체험하며 컴퓨터 사고력을 길렀다.



오후에는 스포츠 활동과 더불어 과학 원리를 체험하는 야외부스로 운영됐다. 체험부스는 대구대학교 물리교육과 학생들이 마찰이 뭐 길래, 포물선을 찾아라, 바나나키의 비밀, 흙런의 꽃 등 스포츠와 연관된 과학 원리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어린이들은 스포츠에 숨겨진 과학도 알고 관련 공작품도 만들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 구미과학관 실내에서는 구미발명교육센터 선생님들이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보는 카프라 체험을 진행했다. 강당에서는 대구대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이 직접 만든 '주토피아 과학수사대'라는 과학연극을 공연해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가족과 함께 행사에 참가한 구미시민들은 동락공원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놀이 체험과 과학관 안팎의 프로그램을 접하며, 구미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는 한편,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신체활동도 단련시키는 과학체험활동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됐다는 평가다.



구미시는 이런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2019년을 과학트림 페스티벌의 원년으로 삼고 매년 가을 구미과학관에  
서 새로움을 더해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경북대학교 주최, 구미과학관과 대구대학교 물리교육과 주관, 구미시와 한국창의재단이 후  
원했다.